

우주산업

Sector Issue Brief

2026. 8. 7

Check Point

- 2Q 실적 전년비 고성장
- 사측 향후 고성장 지속 전망
- 분할 매수 전략 추천

스페이스X 2Q 실적 시사점

| Analyst 이재광 | rheejaekwang@ls-sec.co.kr

2Q26 Review: 매출 78억 달러(+92% YoY), EBITDA 35억 달러(+191% YoY)

1)Connectivity: 매출 43억 달러로 전년비 66%, EBITDA도 26억 달러(마진 61%)로 전년비 64% 증가. 이는 스타링크 가입자 성장 영향. 2분기말 기준 가입자수 1,200만명으로 전년비 100% 증가. 최대 규모 부문 중 하나인 항공 부문 침투율 아직 10% 미만인 점은 향후 성장 기회 암시

2)AI: 매출 26억 달러로 전년비 247% 증가, EBITDA는 11억 달러(마진 45%)로 전년동기보다 14억 달러 증가하며 흑자전환. 이는 구글, 엔트로픽 등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CSA) 영향. 2분기말 기준 연산 용량은 1.4GW로 전년비 1GW 증가. 사측은 올해 말까지 2GW 이상의 연산 용량 갖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3)Space: 매출 9.6억 달러로 전년비 55% 증가. 이는 대형 고객 발사 건수 증가와 유리한 고객 구성 변화 영향. 반면 EBITDA는 스타십 개발비 증가 영향으로 -2억 달러(마진 -21%), 전년동기보다 1.1억 달러 감소. 7월 24일 Starship 13차 발사 통해 성능 10배 향상된 스타링크 V3 위성 20기 배치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Raptor 엔진 재점화 시연 등 비행 목표 달성

일론 머스크의 전망

-매출 전망: 올해 12월까지 1,000억 달러 이상의 ARR에 도달할 것. 30년 혹은 이르면 29년에 1조 달러 예상. 이는 25년 매출 187억 달러 대비 올해 말 약 5배 이상 증가, 5년 뒤 55배 증가한다는 것. 현재 시가총액으로 PSR을 비교해보면 25년 매출 기준 76배 수준에서 올해 연말 ARR로는 14배 수준 30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는 1.4배 수준으로 낮아짐

-스타십: 스타십 V3의 두차례 비행(12차 및 13차)으로 궤도 도달, 상하단의 캐치 및 재사용, 스타링크 V3 위성 배치라는 단기 목표 달성 가능성 높아짐. 규제 승인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14차 발사는 이번 달 말로 예상하며, 타워로 상단부도 회수하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힘. 비행 빈도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1년 후에는 최소 하루에 한번 이상 비행할 것이라고 예상. 참고로 스타십은 팰컨9 대비 탑재 용량을 4배로 늘리고 발사 비용을 1/1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스타링크: V2 위성보다 10배 뛰어난 성능을 가진 V3 위성을 10배 많이 발사할 것. 이는 대역폭이 100배 증가한다는 의미. 즉 비트당 수익화가 10분의 1로 떨어지더라도, 스타링크 매출은 10배 증가한다는 뜻. 스타링크 모바일 V2 위성은 내년부터 발사하고 내년말 서비스 시작. 에코스타로부터 매입한 65MHz 대역폭 확보로 능력이 약 100배 향상될 것(현재 5MHz 대역폭 사용)

-AI: 지상 데이터센터 연산 용량 올해 2GW, 내년 5-10GW로 늘려갈 것. 현재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자본 회수 기간은 1년 미만. 스타마인드 AI 위성은 내년부터 발사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상과 우주 모두 엔비디아 기반으로 구축할 것

분할 매수 추천

현재 주가 고점 대비 45%, 공모가 대비 20% 하락. 이는 대규모 CAPEX 지출 및 초기 투자자 및 임직원 보유 지분 단계적 락업 해제 우려 영향으로 판단. 하반기 CAPEX 지출은 2분기 수준으로 지속될 거라고 밝혔고, 단계적 락업 해제는 내년 6월에 완전히 해제될 것임을 고려하면 주가는 당분간 부진한 흐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단, 2분기 호실적 및 향후 고성장 전망 그리고 수직계열화에 바탕한 경쟁력을 고려하면 주가가 부진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 추천

SPACE EXPLORATION TECH

목표주가 추이

(USD)

— SPACE EXPLORATION TECH

투자의견 변동내역

일시	투자의견	목표가격	과리율(%)			일시	투자의견	목표가격	과리율(%)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2026.08.07	변경	이재광									
2026.08.07	NR	NR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이재광).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 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Overweight (비중확대)			
	업종 비중 기준	Neutral (중립)			
	투자등급 3 단계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0.3%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투자등급 3 단계	Hold (보유)	-15% ~ +15%	9.7%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 의견 비율은 2025. 07. 01 ~ 2026. 0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